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12개 뉴욕시 바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발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45개 사업체의 주류 라이선스 중지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월요일 밤에 644건의 준수 확인을 실시하여 26건의 위반 추가 적발

다기관 태스크포스는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에서 주말에 132건의 위반 적발, 총 팬데믹 관련 벌금은 503건

주류관리청의 벌금 또는 약식 주류 라이선스 중지를 받은 바 및 레스토랑의 업데이트된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가 팬데믹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EO)을 심각하게 위반한 12개 뉴욕시 바의 주류 라이선스를 중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말에는 주 경찰(State Police) 및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이 이끄는 주정부의 다기관 태스크포스가 1,300건 이상의 준수 확인을 실시했으며, 132개 시설의 위반을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644건의 추가 규정 준수 검사가 추가로 완료되었으며, 조사관들은 뉴욕시에서 26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의 경우 바 또는 레스토랑의 주류 라이선스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감염률을 줄이기 위해 매우 노력했으며, 공중보건 지침을 무시하는 바와 레스토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가 경제 재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법을 집행해야 하지만 태스크포스는 노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추가적인 중지 조치를 통해 주정부가 뉴욕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에 빠트리는 사업체에 대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관리청의 **Vincent Bradley** 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류관리청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라이선스 소유자들의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즉시 중단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대부분의 레스토랑 및 바의 소유주 및 직원들도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대단한 희생을 인내했으며,

주류관리청은 우리 주가 이루어낸 전진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즉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월 25일, 26일 및 27일 회의 중에 주류관리청 위원회(State Liquor Authority Board)가 발행한 12개 시설의 약식 중지 비상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잭슨 하이츠 85-07 노던 블라바드(Northern Boulevard)의 "리마(Lima)"

주류관리청은 수많은 불만 사항과 이전의 벌금에 따라 7월 24일 금요일에 "리마"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고 보도를 막으며 부지 바깥에서 20명이 넘는 고객이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로 서서 음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7월 18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부지가 뉴욕시의 오후 11시인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운영하는 것을 기록했으며, 유사하게 큰 그룹의 고객들이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에서 모여 있으며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6월에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찰되고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오존 파크(Ozone Park) 139-09 크로스베이 블라바드(Crossbay Boulevard)의 "CJ 바 앤 라운지(CJ's Bar and Lounge)"

이 라이선스 소유자의 비준수는 6월 27일 토요일에 시작되었으며,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다섯 명의 고객이 부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야외 테이블은 적절히 간격을 두지 않았으며 주변 건물까지 파티와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에 조사관들은 공개 방문 중에 고객에게 안면 가리개 없이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들을 기록했으며 주류관리청 지침의 요약을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시설을 위장 조사하여 30명의 고객이 부지 바로 앞에서 파티를 하고 모여 있었으며 안면 가리개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습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잭슨 하이츠 8407 노던 블라바드의 "루비로사(RubiRosa)"

7월 24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루비 로사"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약 25명의 사람이 시설 앞에 서서 음료를 마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무시하며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과 역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부 직원도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7월 18일 토요일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객들은 마찬가지로 외부에 모여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잭슨 하이츠 86-09 루즈벨트 애비뉴(Roosevelt Avenue)의 "미스터 판초 카페(Mr Pancho's Café)"

7월 25일 토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미스터 판초 카페"의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레스토랑이 온전히 운영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30명이 넘는 개인이 부지 앞에 서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이나 적절한 안면 가리개 없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3명의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코로나 112-51 루즈벨트 애비뉴의 "블루 엔젤 라운지(Blue Angel Lounge)"

7월 25일 토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블루 엔젤 라운지"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음식 없이 술을 마시는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주방을 검사한 결과 녹슨 그릴, 기름이 없는 깊은 프라이어, 빈 냉장고, 빈 음식 서빙 스테이션과 가전제품용 가스가 꺼져 있고 현장에 주방 직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여 레스토랑이 한동안 음식 요건을 위반했다는 암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설은 또한 7월 18일 토요일에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25명이 내부에서 음주하는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잭슨 하이츠 84-19 노던 블라바드의 "데 라 모라 레스토랑(De La Mora Restaurant)"

7월 18일 토요일 저녁에 한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부지 바로 앞에 서서 마시고 모인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조사관은 자정 직전, 즉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돌아왔으며, 30명의 고객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이전 7월 13일과 14일에 주지사의 행정명령 위반으로 주류관리청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잭슨 하이츠 218-21 자메이카 블라바드(Jamaica Boulevard)의 "엘 파티오 바(El Patio Bar)"

7월 25일 토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엘 파티오 바"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바텐더 및 주방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고 고객들이 바 안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7월 18일 토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들은 부지가 뉴욕시의 오후 11시인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한참 지나 운영하는 것을 기록했으며, 큰 그룹의 고객들이 나이트클럽과 같은 분위기에서 모여 앉으며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아스토리아 37-01 30번 애비뉴 "더 그랜드(The Grand)"

7월 23일 목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 및 뉴욕시 보안관 사무실(Sheriff's Office)과의 협동 검사를 통해 뉴욕시의 오후 11시 금지 시간을 지나 부지가 운영하며 최소 12명의 고객이 직접 부지 앞에 모여 안면 가리개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부 조사관이 내부를 조사한 결과 고객들이 술을 마시고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조사관이 도착했을 때, 바운서가 고객들이 열린 용기를 들고 부지를 나가도록 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잭슨 하이츠 87-05 노던 블라바드의 "엘 파이사 카페(El Paisa Café)"

7월 18일 토요일 저녁에 한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부지 바로 앞에 서서 마시고 모인 고객들을 관찰했습니다.

조사관은 뉴욕시의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인 오후 11시를 한참 지난 오후 11시 30분에 돌아와 25명의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아무도 쓰지 않고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사업체 앞에서 술을 마시며 모여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잭슨 하이츠 76-07 루즈벨트 애비뉴의 "로맨티코스(Romanticos)"

7월 23일 목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로맨티코스"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13명의 고객이 바 안에서 술을 마시고 매니저와 바운서가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으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라는 바와 레스토랑에 대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코로나 102-14 루즈벨트 애비뉴의 "델리시아스 멕시카나스(Delicia's Mexicanas)"

7월 25일 토요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은 "델리시아스 멕시카나스"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고객들이 부지 내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매니저가 조사관의 경로를 막고 웨이트리스가 고객들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경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라이선스 소유자는 7월 24일과 7월 4일에 반복적으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뉴욕시의 오후 11시 야외 서비스 금지 시간을 넘겨 서빙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아스토리아 36-12 디트마스 블라바드(Ditmars Boulevard)의 "더 포머로이(The Pomeroy)"

7월 23일 목요일에 한 주류관리청 조사관이 "더 포머로이"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를 실시하여 15명이 넘는 고객이 레스토랑 앞에 모여 서서 주변 사업체까지 퍼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확인 조치는 7월 19일에 주류관리청 조사관이 직원들이 안면 가리개를 쓰지 않고 테이블 간격이 적절하지 않은 것, 레스토랑이 음식 없이 술을 서빙하는 것을 발견했던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였습니다.

비상 중지는 전체 위원회(Full Board)의 특별 회의에서 Lily Fan 커미셔너 및 Greeley Ford 커미셔너가 명령한 것입니다. 이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디지털로 녹화된 동영상으로 2020년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에 수행되었습니다. 비상 약식 중지(Emergency Summary Suspensions)는 주류관리청에서 라이선스 사업체의 지속적인 운영이 공중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부과됩니다. 중지 명령은 즉시 처리되며 무기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라이선스 영구 해지 및 위반 건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최대 처벌이 부과됩니다. 비상 중지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소유자는 주류관리청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앞에서 신속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